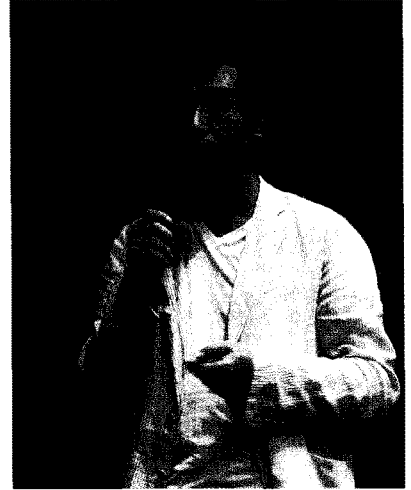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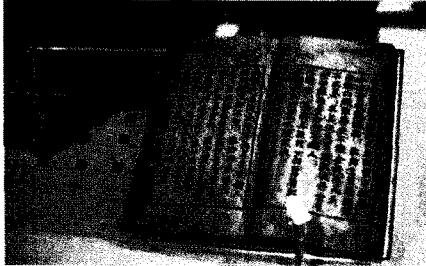


## 증도가자 학술발표회 “탄소연대측정·문헌연구결과 증도가자 확실”

지난해 9월 발표된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증도가자'에 대한 학술발표회가 지난 6월 17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과 청주고인쇄박물관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학술발표회는 옥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과 교수가 '고려금속활자 연구사'에 대해, 남권희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증도가자의 개요와 특징'에 대해, 홍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증도가자에 진류된 먹의 탄소연대 분석'에 대해, 예병준 경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가 '금속활자의 주조방법과 기술'에 대해, 김성수 청주대학교 교수가 '남명천화상송도증도가자의 성립과 판본'에 대해, 이승철 청주고인쇄박물관 박사가 '증도가와 증도가자의 서체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글 | 입남숙 차장 sang@print.or.kr





탄소연대 측정을 한 흥완 한국지질 자원 연구원.

남권희 교수는 “지금까지 확인된 활자의 수는 100여자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활자의 글자서체는 현존의 번각본 ‘증도가’와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크기, 획의 방향, 이체자의 모양 등에서 거의 같고 번각자의 오차로 인정되는 범위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라며 “이번의 자료들은 그 수량과 정확한 인본, 먹을 통한 간접적인 주소와 사용시기의 추정가능, 다양한 형태, 같은 글자의 복수활자에 의한 주소법 분석, 후대 활자와의 관련성 검토 등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단계의 고려 금속활자 인쇄출판에 대한 연구분야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세계 문화사에서 우수한 고려의 출판문화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료명	Lab코드명	탄소연대	환산연대
비 悲	TWd100410	800+40	AD 1210~1270 68.2% AD 1160~1280 95.4%
불 佛	TWd100411	940+40	AD 1030~1160 68.2% AD 1010~1210 95.4%
대 大	TWd110005	1170+40	AD 770~980 94.0%
인 人	TWd110006	1090+50	AD 810~1030 95.4%
원 源	TWd110007	-	-
광 胱	TWd110008	-	-

흥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유물의 탄소연대 측정은 시료의 원료 혹은 시료에 잔류된 탄소성분중에 남아있는 방사성탄소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탄소연대와 그 오차범위를 고려하여 얻어진 환산연대는 위 표와 같으며, 시료마다 그 연대범위가 다소 차이가 난다. 표 중 환산연대 옆에 %로 나타낸 수치들은 측정된 연구구간의 신뢰도를 나타내며, 수치가 높을수록 측정구간의 신뢰도는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이 측정결과들이 시료에서 채취된 먹을 이용해 얻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대가 활자들의 제작연대를 직접 지시하는 것은 아니며, 엄밀히 말하면 먹의 재료가 된 유기물, 즉 나무의 생존이 멈춘 시기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성수 청주대학교수는 “남명송증도가는 영가대사 ‘증도가’의 각 구절에 남명화상 법천이 계송을 붙여서 선문의 궁극적인 목적인 깨달음의 실체를 설파한 책이다. 최이는 1239년에 금속활자본 남명송증도가를 목판본으로 번각하면서 간행기에서 남명송증도가는 선문에서 가장 요긴하여 으뜸으로 요구되는 도서임을 강조하면서 했다. 그러면서 이 책을 목판본으로 대량 인쇄 배포하여 영구전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239년에 간행된 증조본 ‘남명송증도가’는 금속활자본을 저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비록 번각본이라 하더라도 금속활자본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철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사는 “증도가의 총글자수는 1594종 9418자로 가장 많이 사용된 글자는 不248회, 無198회, 來101회 등이었다. 증도가를 새긴 각수는 11명일 것으로 추정되며 증도가자 총 59자 가운데 증도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글자는 37자”라고 말했다. 이승철 학예사는 증도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37자를 증도가에 나온 동일자와의 비교를 통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증도가자가 진본임을 뒷받침했다.

한편 이날 학술발표회에는 증도가자에 대한 논란을 입증하듯 많은 취재진들과 관련인 2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